

로니상

팩트피셔맨

▶ 정구준, 최형욱(서울발산초등학교)

리포트

재료비 상승 때문에
길거리 붕어빵이 사라진다고요?
사라진 붕어빵을 찾습니다.

포스터

붕어빵 실종 사건의 전말



팀 소개 인사 및 각오

저희는 수많은 정보의 바다에서
진짜 정보를 낚는다는 뜻으로
'팩트피셔맨'이라는 팀명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이트와 소셜 미디어가 존재합니다.
물론 유용한 정보도 많겠죠.
하지만 그중에는 거짓 정보도 존재하고
그걸 믿는 사람도 있기에 저희는 그 거짓 정보를 걸러내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여러분에게
진실을 낚아드리겠습니다.

팩트체크 리포트

재료비 상승 때문에 길거리 붕어빵이 사라진다고요? 사라진 붕어빵을 찾습니다.

팩트체크 계획 수립하기

☞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

지난겨울방학에 저희는 각자의 집에 놀러 갈 때면 간식으로 붕어빵을 사 갔습니다. 따뜻하고 맛있는 붕어빵을 자주 먹고 싶었지만, 집 앞 붕어빵 가게는 문을 닫는 날이 많았습니다. 사장님이 가게 문을 왜 잘 안 여는지 의문이 들던 참에 겨울철 간식인 길거리 붕어빵이 원재료비 상승으로 가격이 많이 올라 판매점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체커톤 예선 과제 주제를 고민하며 겨울철 간식으로 우리 둘의 추억이 있는 붕어빵이 정말 사라질 위기에 있는지 궁금한 마음으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 팩트체크 방법에 대한 계획

1. 무슨 내용을 찾을 것인가요?

- (1) 붕어빵과 관련된 기사
- (2)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변동지수
- (3) 붕어빵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

2. 어떤 형태의 자료를 찾을 것인가요?

- (1) 뉴스 기사
- (2) 통계청 자료
- (3) 소비자 설문조사
- (4) 붕어빵과 관련된 도서

3. 어떤 방법으로 팩트체크 할 계획인가요?

- (1) 붕어빵 가격, 붕어빵 소비와 관련된 뉴스 기사 찾아보기
- (2) 붕어빵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물가지수 찾아보기
- (3) 붕어빵 판매점에 가서 가격과 판매 상황 여쭙보기
- (4) 소비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붕어빵에 관한 생각 확인해 보기
- (5) 소비자들의 트렌드를 알기 위해 관련 내용 찾아보기
- (6) 여러 형태의 붕어빵을 사서 먹고 가격이나 맛 체감해 보기

체크해보기

① 찾아보기

물어보기

клик해보기

뉴스 기사에 대한 근거 조사

1. 나경연 기자, “비싸서 사라지는 슬픈 붕어빵... ‘붕세권’ 더 뜨거워진다”, 국민일보, 2024. 02. 12.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9145611&code=61121111&cp=nv>
한겨울은 지났지만 붕어빵 열풍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원재료 값과 자릿값이 오르고 있어 가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호떡과 땅콩과자 같은 길거리 간식들도

없어지는 추세다. 김현식 대중문화평론가는 붕어빵을 한국 대중문화로 간주해 정부가 지원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 김다란 기자, “남는 게 없다.. ‘1천원에 붕어빵 세 마리’는 옛말”, 남도일보, 2024. 01. 07.

<https://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53891>

물가가 올라 지난해 3개 1천원을 받던 붕어빵을 2개 1천원으로 판매하고 있다. 재료 가격이 올라 판매해도 남는 게 없다는 판매자의 말이다. 밀가루, 붉은팥 등 재료가 인상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농산물 유통정보로 오름세를 확인할 수 있다. 붕어빵 파는 노점을 이전처럼 찾아보기 힘들고 노점의 빈자리는 백화점과 편의점이 대체해 가고 있다.

3. 이민경 기자, “붕어빵 적정가는 얼마?... 명동 4000원 vs 회기동 200원”, 헤럴드경제, 2023. 12. 04.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1204000587>

서울의 여러 붕어빵 가게를 조사한 결과, 3마리에 2,000원이 국룰(국민룰)인 것으로 밝혀졌다. 붕어빵 평균 가격은 600원 대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 명동은 크로와상 붕어빵 1마리를 4,000원에 팔지만 화곡동 근처는 붕어빵 5마리를 1,000원에 판다. 명동과 비교해 보면 가격 차이가 무려 20분의 1이다. 화곡동 까치산역 근처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는 A씨는 밀가루반죽 1kg을 사서 남는 게 고작 10,000원이라고 했다.

4. 이상학 기자, “붕어빵도 대란 오나?... 몸값 비싸진 반죽, 공급도 부족에 한정 판매도”, 뉴스1, 2023. 11. 26.

<https://www.news1.kr/articles/5241834>

관악구 붕어빵 장사 A씨는 하루 250마리 한정판매를 한다. 대한제분의 붕어빵 믹스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다. 붕어빵 반죽 가격이 10kg이 25,000원이었지만 40,000원까지 상승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대량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소규모로 하는 것과 공급과 수요의 차이가 커 양과 질의 차이가 나서 작은 가게가 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5. 김현정 기자, “팥값 급등에 ‘1마리 1천원’붕어빵 등장.. 노점상 감소에 간식지도 사라져”, 매일경제, 2023. 11. 26.

<https://www.mk.co.kr/news/economy/10867346>

설탕, 밀가루와 같은 재료비 인상으로 붕어빵 시세가 함께 오르고 있다. 밀가루 생산지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급이 줄어 전쟁 전 대비 45%가량 급등했다. 설탕, 소금 가격 역시 지난달 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가까이 뛰면서 물가에 영향을 미쳤다. 붕어빵 노점 수가 줄어들어 당근마켓의 ‘겨울 간식지도’는 올해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6. 이은정 기자, “[도청도설] ‘곰’ 붕어빵” 국제신문, 2022. 12. 21.

<https://n.news.naver.com/article/658/0000028316?sid=110>

과거에는 붕어빵이 자본금도 적게 들고 기술이 딱히 필요하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사 먹는 간식이었지만 최근 붕어빵의 주재료인 밀가루 값이 오르고 1,000원에 4마리가 2마리로 변했고 한국물가정보가 말하길 재료값이 5년 대비 49.2%, 작년 대비 18.4% 이고 수입산 팥 100% 상승했다.

관련 사이트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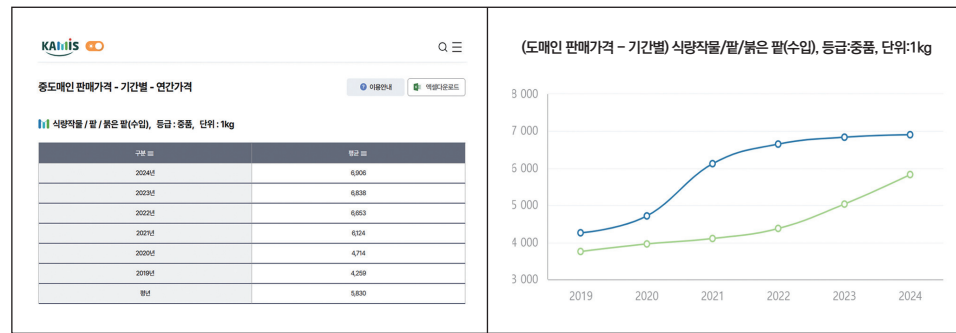
기사 내용에 재료비 상승으로 붕어빵 가격이 상승해 길거리 붕어빵이 사라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농수산물 유통정보 서비스와 한국소비자원 사이트를 이용하여 재료가 상승 상황을 확인해 보았다. 붕어빵 재료로 언급된 팥, 밀가루, 설탕의 가격은 모두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재료값 상승이 붕어빵 소비 감소로 이어지는지 확인해보고 싶어 자료를 조사해 보니 여전히 붕어빵은 겨울철 간식으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1. 팥 가격

기사에서 제시된 농수산물 유통정보 서비스(kamis.or.kr)에 붕어빵의 재료가 되는 수입산 팥 가격(1kg 기준)의 가격 변동 상황을 살펴보았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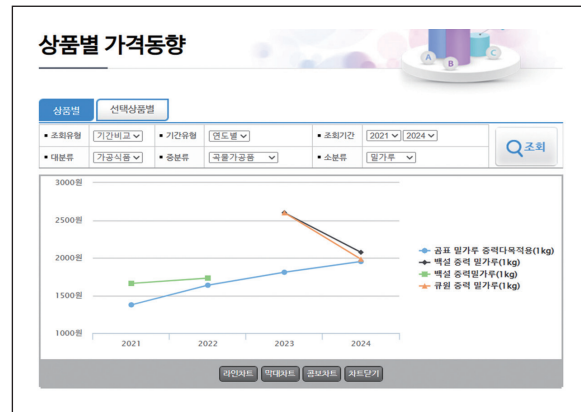
연간 가격변동 상황을 각각 조사해 보았다. 2019년 수입산 팥은 kg당 4,259원에서 2020년 4,714원으로 상승하였고 2021년에 6,124원으로 큰 폭 상승하며 2024년에는 6,906원을 기록하였다. 팥 가격은 2019년 대비 2024년에 2,647원만큼 상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2019년~2024년 중도매인 수입산 팥 판매가격(1kg) 변동상황, 농수산물 유통정보 서비스(kamis.or.kr)



2. 밀가루 가격

기사에 나온 대한제분의 밀가루 가격, 우크라이나 전쟁 전후 밀가루 가격의 변동을 조사해 보았다. 한국 소비자원 참가격(price.go.kr) 생필품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한제분 곱표 밀가루는 2021년도 1,375원에서 2024년도 1,951원으로 상승했다. CJ제일제당 백설 밀가루는 2021년 1,660원에서 2023년도에 2,600원으로 급상승하였다가 2024년도에 2,074원으로 하락했음을 알 수 있고, 삼양사의 규원 밀가루 역시 2023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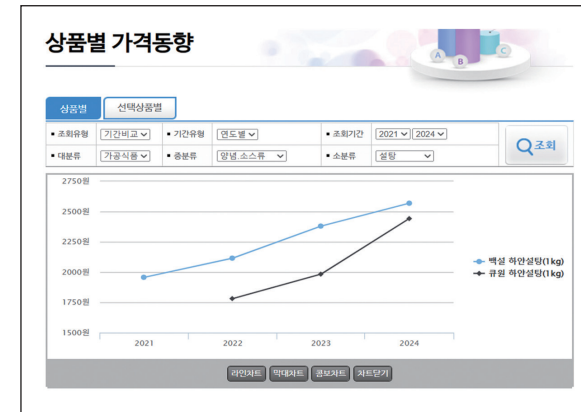


2,600원에서 2024년 1,983원으로 하락했다. 2022년도 2월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가루 가격은 급상승했으나 다시 하락한 점을 알 수 있었다.

▶ 2021년~2024년 밀가루 가격 변동 상황,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price.go.kr)

3. 설탕 가격

기사에 나온 설탕 가격의 변동 역시 조사해 보았다. 한국 소비자원 참가격(price.go.kr) 생필품 가격 동향에 따르면 2021년에서 2024년까지 백설 하얀 설탕은 1kg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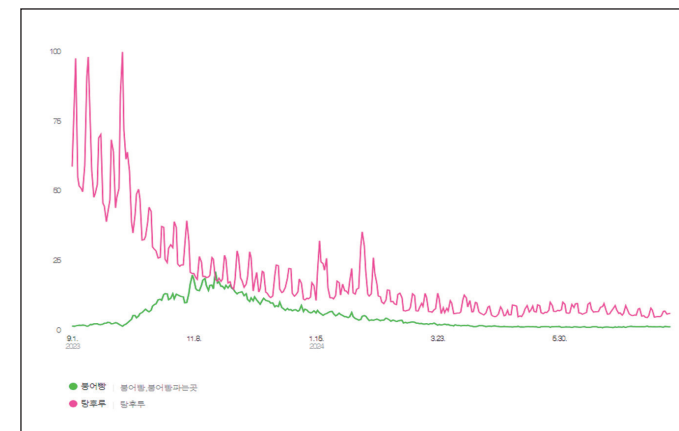


1,967원에서 2,569원으로, 2022년에서 2024년까지 규원 하얀 설탕은 1kg 기준 1,781원에서 2,442원으로 상승했다.

▶ 2021년~2024년 설탕 가격 변동 상황, 한국 소비자원 참가격(price.go.kr)

4. 붕어빵 인식과 선호도 조사

재룻값이 올라가서 길거리 붕어빵이 사라졌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붕어빵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 것은 아닌지, 여전히 붕어빵은 겨울철 간식으로 인기가 있는 상품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다. '네이버'에 검색어 트렌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데이터랩'이 있어 '붕어빵'을 주제로 2023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의 사람들이 얼마나 검색했는지 확인해 본 결과 10월부터 검색량이 증가하기 시작해 붕어빵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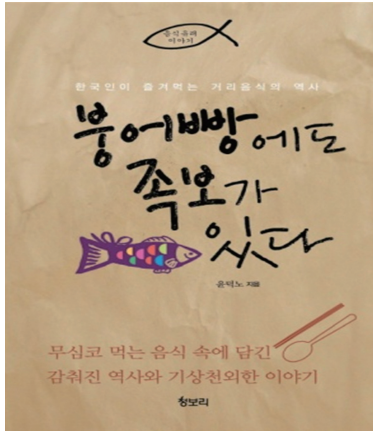


여전히 겨울철 간식으로 인기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작년 인기 간식이었던 탕후루와 비교해 보아도 검색량에서 밀리지 않아 인기 간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 2023년 9월~2024년

7월까지 탕후루 검색량과 붕어빵 검색량. 네이버 데이터랩(https://datalab.naver.com)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책이나 논문 자료



윤덕노, 『붕어빵에도 족보가 있다』, 청보리, p18~p23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겨울철 간식으로 붕어빵을 떠올리게 되었는지, 언제부터 붕어빵이 있었는지 알아보려고 『붕어빵에도 족보가 있다』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 이 책은 붕어빵의 역사와 족보를 잘 알려주는 책이다. 붕어빵은 많은 나라를 거쳐 우리 앞으로 오게 된 음식으로 붕어빵의 역사는 아주 길고 많은 변화를 겪으며 오랫동안 우리 곁에 있었다고 한다.

구준: 붕어빵은 겨울철에 제일 많이 먹은 간식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겨울철 인기 간식이다. 붕어빵은 동양과 서양 모두 관련이 있다. 무려 고대 그리스와 중국 한나라 까지 거쳐 우리나라에 도달한 것이다. 사실 붕어빵은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 끼니를 때우려고 먹은 게 붕어빵이다. 붕어빵은 지역마다 부르는 게 다른데 북한은 잉어빵, 일본은 도미 빵, 우리나라는 붕어빵이다. 이처럼 붕어빵은 족보가 길고, 우리나라가 힘들 때 도와준 추억의 간식이라고 볼 수 있겠다.

형욱: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붕어빵은 힘들 때 먹는 국민 간식으로 자리 잡았다. 붕어빵은 일본에서 왔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친근한 도미를 사용했고 그 결과 서민에게 잘 팔리는 효과가 나타났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도미 빵이 전해졌고 도미빵과 비슷하게 밀가루를 물에 풀어 구워 만든 것이 붕어빵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후 겨울철의 간식으로 자리 잡아서 과거보다 비싸긴 하지만 여전히 사 먹는 간식이다.

확인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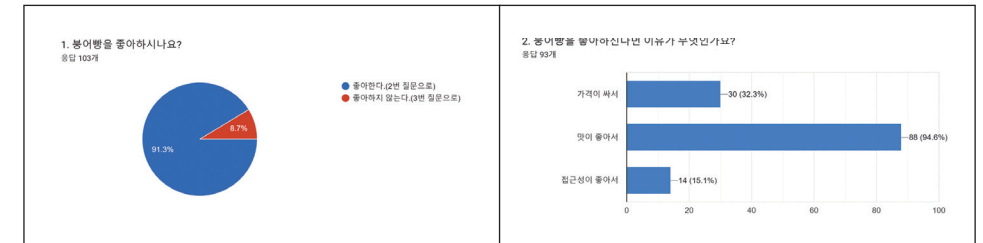
② 물어보기

확립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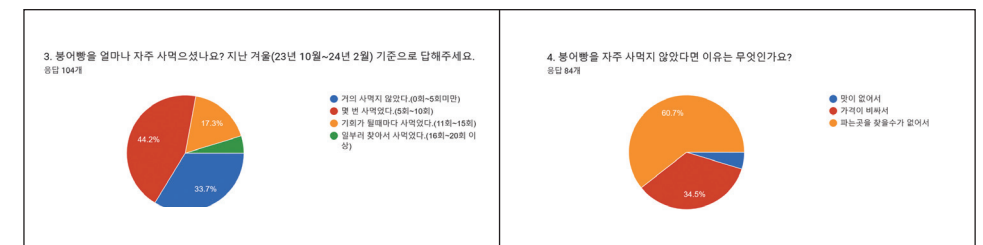


붕어빵을 사 먹는 소비자들의 생각이 궁금해 설문 조사를 하였습니다. 설문조사는 2024. 5. 30.부터 2024. 6. 4.까지 약 6일간 조사했습니다. 주변 친구와 지인들에게 홍보물과 함께 설문 주소를 보내 조사를 하였고, 10대부터 50대, 104명이 붕어빵을 사 먹을 때 느낀 점이나 붕어빵 가격, 소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질문에 답해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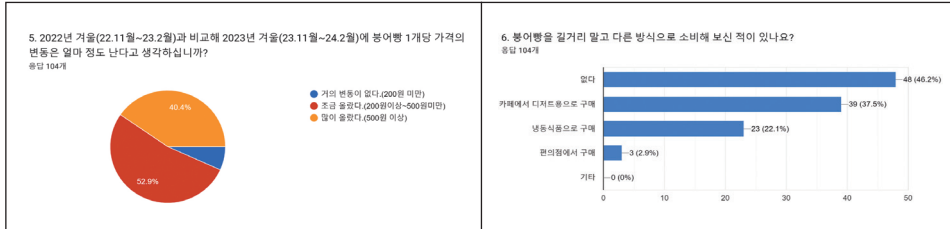
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대다수가 붕어빵을 좋아하고(91%), 맛이 좋아서(94%) 좋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붕어빵을 자주 사 먹는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사 먹지 않는 분들의 경우 파는 곳이 없어서라고 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이 가격변동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붕어빵을 길거리가 아닌 카페나 냉동식품으로 구매해 봤다고 답했습니다.



붕어빵을 좋아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91%가 좋아한다고 답하였고, 붕어빵을 왜 좋아하냐는 질문에 가격이 싸서 좋아한다는 응답자는 32.2%로, 맛이 좋아서(94%)가 가장 많은 응답을 했다.



23년 10월~24년 2월까지 붕어빵을 얼마나 자주 사 먹었냐는 질문에 5회 미만 사 먹은 사람(33.7%)을 제외한 나머지(66.3%)가 대부분 많든, 적든 사 먹었다고 답하였다. 3번 답에서 사 먹지 않았다고 답한 경우에 사 먹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는 질문에 약 60%가 파는 곳을 찾을 수 없어서 먹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붕어빵 가격변동에 대해 질문해 보니 약 92% 정도가 변동이 있다고 했다. 또, 조금 올랐다가 많이 올랐다보다 조금 더 많았다. 붕어빵을 길거리 말고 다른 방식으로 소비해 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다른 방식으로 소비해 본 적이 더 많다고 답하였다. 다른 방식으로 소비해 본 것 중에 카페에서 디저트 용으로 구매해 봤다는 대답이 제일 많았다.

판매자 인터뷰 ('해례 커피' 직원, 신채은님)



지난겨울 직장인들이 많은 마곡나루 지역에 붕어빵을 팔고 있는 카페가 있어 우리 주제와 관련하여 인터뷰를 요청해 보았습니다. 판매자분께 질문하면서 소비자와 판매자의 입장이 생각보다 비슷해서 놀랐습니다. 다음은 판매자와 인터뷰 한 내용입니다.

Q1. 겨울시즌 메뉴로 겨울마다 붕어빵을 파신다고 하셨는데, 붕어빵에 관한 다양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붕어빵을 판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아무래도 겨울철 간식하면 떠오르는 게 붕어빵이잖아요. 그래서 붕어빵이 잘 팔릴 것 같아 메뉴로 개발해 보았습니다.

Q2. 붕어빵은 하루 기준 얼마만큼 팔리나요?

-> 3개가 한 세트인데, 하루에 평균 80~100세트 정도 팔립니다. 붕어빵 개수로 하면 300개 정도 됩니다. 지난 연말에는 많이 팔릴 때 250세트가 팔렸어요.

Q3.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사가요?

-> 저희 카페는 20~30대 직장인이 대부분이시고, 50대 이상의 어머니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평균적으로 고르게 많이 판매되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20대~30대 사이의 커플 분들이 더 많이 사가는 것 같아요. 대부분 젊은 연령대의 MZ세대 고객들이 케이크나 쿠키 같은 다른 디저트에 비해 붕어빵이 가격이 저렴하지만 맛있다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귀엽고 재미있어서 더 좋아했습니다.

Q4. 매장에서 판매하는 붕어빵은 무슨 종류가 있나요?

-> 팔 붕어빵, 쭈크 붕어빵이 있습니다. 소는 똑같이 팔이 들어가지만 반죽에 쭈크 가루를 첨가하여 녹색으로 된 쭈크 붕어빵을 메뉴에 넣었어요.

저희 가게 붕어빵은 반죽을 저희가 직접 만들어요. 찹쌀로 만들어서 바삭하게 맛있는데 젊은 소비자들이 요즘 선호하는 레트로 분위기의 쭈크 붕어빵도 많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Q5. 가격은 어느 정도이고 가격 결정은 어떻게 하셨나요?

-> 가격은 3개 한세트로 4,900원 정도입니다. 가격 결정 이유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재료가 들어가고 카페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자릿세를 포함하여 결정하였습니다.

Q6. 붕어빵의 판매 이익은 얼마 정도 되나요?

-> 판매 이익은 재료값과 자릿세를 빼면 한 세트 당 2,000원 정도 남는 것 같아요.

Q7. 이번 겨울에도 붕어빵을 팔 계획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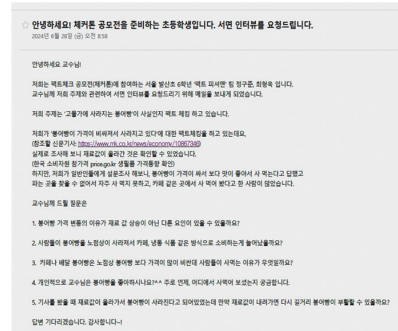
-> 이번 겨울에도 필수적으로 팔 예정입니다. 만드는 법도 간단하고, 인기가 많아 판매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다른 겨울철 메뉴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붕어빵을 꼭 판매할 것 같아요.

Q8.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붕어빵이 사장님이 느끼시기에 길거리 붕어빵, 냉동 붕어빵, 편의점 붕어빵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퀄리티예요. 저희는 붕어빵 이름도 '고메 붕어빵' 인데요! 고메는 미식가, 식도락가라는 뜻인데, 저희가 이렇게 지은 이유는 저희 가게 붕어빵은 저희가 더 잘 알고, 더 다양한 경험과 맛으로 더 잘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구준, 형욱: 붕어빵 판매와 관련하여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가 인터뷰 (대림대학교 경영학과, 주태욱 교수님)



소비자 설문과 판매자 인터뷰를 통해 각자의 입장에서 붕어빵 판매와 소비에 대한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점에서 판매하는 붕어빵의 가격이 왜 지역마다 다른지, 그리고 어쩌다 붕어빵을 노점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 먹게 되었는지 궁금하여 추가적으로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대림대학교 경영학과 주태욱 교수님과 메일로 질문하고 답장을 받은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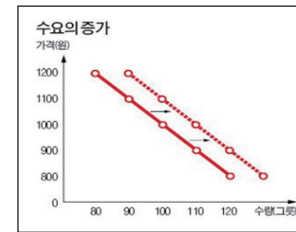
팩트 피셔맨 팀: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희는 팩트체크 공모전(체커톤)에 참여하는 서울 발산초 6학년 '팩트 셔맨' 팀입니다. 교수님께 저희 주제와 관련하여 서면 인터뷰를 요청드리기 위해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붕어빵이 가격이 비싸져서 사라지고 있다'에 대한 팩트체킹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조사해 보니 재료값이 올라간 것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일반인들에게 설문조사 해보니, 붕어빵이 가격이 싸서 보다, 맛이 좋아서 사 먹는다고 답했고 파는 곳을 찾을 수 없어서 자주 사 먹지 못하고, 카페 같은 곳에서 사 먹어왔다고 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교수님께 드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래부터는 질문에 교수님이 답변을 주신 내용으로 질문-답변 형태로 쓰겠습니다.)

Q1. 교수님, 붕어빵 가격변동의 이유가 재료값 상승이 아닌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 제품의 가격은 원재료 가격만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제품 제조에 필요한 사람들의 인건비, 제품에 대한 다양한 광고비, 사장님의 수익금 등이 상승하였을 때도 제품 가격은 증가합니다. 유사한 붕어빵을 판매하는 경쟁 노점상의 붕어빵 가격 인상 시에도 가격변동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재료의 가격변동과 별개로 소비자 선호도가 바뀌거나 소비자의 소득 변화도 소비에 영향을 줍니다.

Q2. 소득이 올라갔거나, 소비자의 취향이 바뀌면 붕어빵의 가격이 바뀔 수 있을까요? 이런 이유로 소비가 바뀔 수도 있을까요?



-> 가격이 사람들이 소비할 수요의 영향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지만, 가격 외 소득, 유행, 대체재의 가격 등은 수요량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큽니다. 그래프처럼 만약, 어떤 상품이 갑자기 크게 유행해 많이 팔리면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소비는 발생합니다.

Q3. 노점상이 사라져서 사람들이 붕어빵을 카페, 냉동식품 같은 방식으로 소비하는 게 늘어났을까요?

-> 실제 카페나 냉동식품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붕어빵을 먹고 싶은 핵심 고객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러한 핵심 고객이 노점상이 사라짐에 따라 점점 카페나 냉동식품으로의 소비로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Q4. 카페나 배달 붕어빵은 노점상 붕어빵보다 가격이 많이 비싼데 사람들이 사 먹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 보통 카페에서의 소비자들의 소비는 제품 자체를 소비하는 것도 있지만, 카페에서 보내는 시간을 돈을 주고 소비하는 모습이 강합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거나, 혼자 공부하는 등의 제품 자체의 소비가 아닌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카페를 방문하게 됩니다. 배달도 주문과 픽업의 편리함이 라는 제품 자체 소비 외 다른 목적에 대해 추가적인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이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시간과 편리성을 돈으로 지불할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붕어빵을 소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5. 개인적으로 교수님은 붕어빵을 좋아하시나요?^^

-> 사실 저는 팔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붕어빵을 많이 좋아하지 않지만, 아이스크림으로 된 붕어빵은 가끔 구매합니다.

Q6. 붕어빵을 조사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붕어빵을 겨울 대표 간식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크기에 지속해서 소비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실 장사하는 개인 혹은 기업의 존재 이유는 이윤 추구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붕어빵같이 소비자들에게 각인된 제품은 끊임없이 소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가격과 소비자 취향을 고려하여 모양이

달라지더라도 계속 시장에 존재할 것입니다.

판매자 인터뷰 (민주노점상 전국 연합) 및 기자 인터뷰(헤럴드경제 이민정 기자 등)

겨울철이 아니라서 붕어빵을 파는 길거리 상점(노점)을 찾을 수 없어 민주노점상 전국연합을 찾아 전화인터뷰를 요청하고자 했습니다. 몇 번 연락을 드렸지만 전화를 받지 않아 인터뷰는 할 수 없었습니다. 또 붕어빵 개당 가격을 지역별로 조사한 기자님 팀이 있어 서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답장이 오지 않아 인터뷰를 하지 못했습니다.

알아보기

물어보기

③ 직접해보기

직접 실험해볼 수 있는 방법

붕어빵 가격과 맛, 만족도 차이를 비교하려고 다양한 종류의 붕어빵을 직접 사서 먹어 보기로 했다. 실제로 먹어본 결과 길거리 붕어빵보다 편의함에서는 냉동 붕어빵이, 다양한 종류와 특별함에서는 카페 붕어빵이 좋았다. 다양한 종류의 붕어빵을 직접 체험 해 보며 사람들이 생각보다 냉동 붕어빵이나 카페에서도 많이 구매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싸고 맛있는 것도 좋지만, 붕어빵 자체에 친근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1. 길거리 붕어빵

우리 동네 길거리 붕어빵 가격은 3개에 2,000원이었다. 길거리 붕어빵은 대체적으로 붕어빵 안에 있는 소가 많았다. 주문 즉시 바로 반죽을 붓고 구어 살짝 식힌 다음 먹을 수 있었다. 기름이 들어가서 시간이 지날수록 눅눅하고 바삭한 부분은 사라졌지만, 소가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맛있다. 그리고 붕어빵을 담은 종이봉투를 들고 갈 때면 기다리는 친구가 생각나서 기억이 많이 남는다.

2. 냉동 붕어빵

냉동 붕어빵을 먹어보기 위해 배달앱을 사용하여 주문하였는데 10분 만에 도착해서 편리하였다. 냉동 붕어빵은 가격 대비 맛이 좋았다. 냉동 붕어빵의 가격은 12개 들어



있는 미니 붕어빵이 3,990원, 10개 들어 있는 슈크림 붕어빵은 4,990원이다. 그리고 냉동 붕어빵이다 보니 에어프라이기에 구워 바로 먹으니까 우리가 평소에 사 먹는 길거리 붕어빵에 비해 훨씬 더 바삭하고 노릇 노릇 해서 맛있었다. 길거리 붕어빵도 맛있지만 냉동 붕어빵이 더 가성비가 있었다. 우리가 붕어빵을 먹다 남겼는데 다시 얼려놨다가 구우면 되니까 언제든지 꺼내 먹을 수 있는 그런 점도 좋았다.



3. 카페 붕어빵

카페 붕어빵은 다양한 종류가 있었다. 카페 붕어빵은 1개당 4,000원이었는데 비교적 크긴 하지만 길거리 붕어빵이나 냉동 붕어빵에 비해 훨씬 비싸서 가성비가 좋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점은 붕어빵의 반죽이 페이스트리로 되어 있어 버터 맛이 훨씬 진하게 났고 소의 종류가 다양해 선택할 수 있었는데 특히, 애플 시나몬 맛은 애플파이처럼 달콤하고 계피 향이 나서 신선한 식감이 있었다. 초코 붕어빵은 붕어빵에 단맛이 엄청나게 많이 나고 맛있었다. 붕어빵을 팔지 않는 계절에 선택해서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결론 작성하기

재료비 상승 때문에 길거리 봉어빵이 사라졌을까?

봉어빵의 원조는 길거리 봉어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에게 봉어빵은 길거리에서 파는 것이 익숙하다. 하지만 계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길거리 봉어빵이 없어지고 있고, 파는 곳을 찾기 어려워졌다. 실제로 우리가 조사한 정보에 따르면 봉어빵의 재료가 되는 쌀, 밀가루, 설탕의 가격이 1년 전보다 많이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봉어빵의 주재료가 쌀과 밀가루, 설탕이기 때문에(슈크림의 재료도 밀가루가 포함된다.) 재료가 많이 올라 길거리에서 봉어빵을 파는 판매자들은 봉어빵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길거리 봉어빵은 싸고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봉어빵을 사 먹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판매자들은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봉어빵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사 먹지 않기 때문에 길거리 봉어빵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봉어빵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을까? 그건 아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봉어빵을 다른 방식으로 소비해 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대부분이 있다고 답하였다. 그렇다는 건 봉어빵이 없어지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소비된다고 볼 수 있다. 편의점에서 파는 조그만 봉어빵도 있고, 카페에서 파는 다양한 맛의 봉어빵도 출시되고 있다.(예:피자 봉어빵, 누텔라 봉어빵 등) 따라서 봉어빵은 길거리 상점만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사에서 살펴보았을 때 ‘고물가에 사라지는 봉어빵’에 정말 봉어빵이 사라지고 있고, 길거리에 봉어빵 판매자가 줄어들었을까를 고민하며 팩트체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물가가 올라가 가격이 상승하면 봉어빵 소비는 줄어야 하는데 봉어빵은 다른 방식으로 팔리고 있었다. 가심비(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도)에 따라 소비가 되는 소비트렌드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

봉어빵에 관련된 책 ‘봉어빵에도 족보가 있다’를 읽어보니 음식은 생물체와 비슷하고, 환경에 맞게 변화한다고 나와 있다. 많은 방법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봉어빵은 사라진 것이 아니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미디어 콘텐츠

봉어빵 실종 사건의 전말



콘텐츠 소개

🕒 기획의도

길거리 봉어빵이 재료가 상승으로 사라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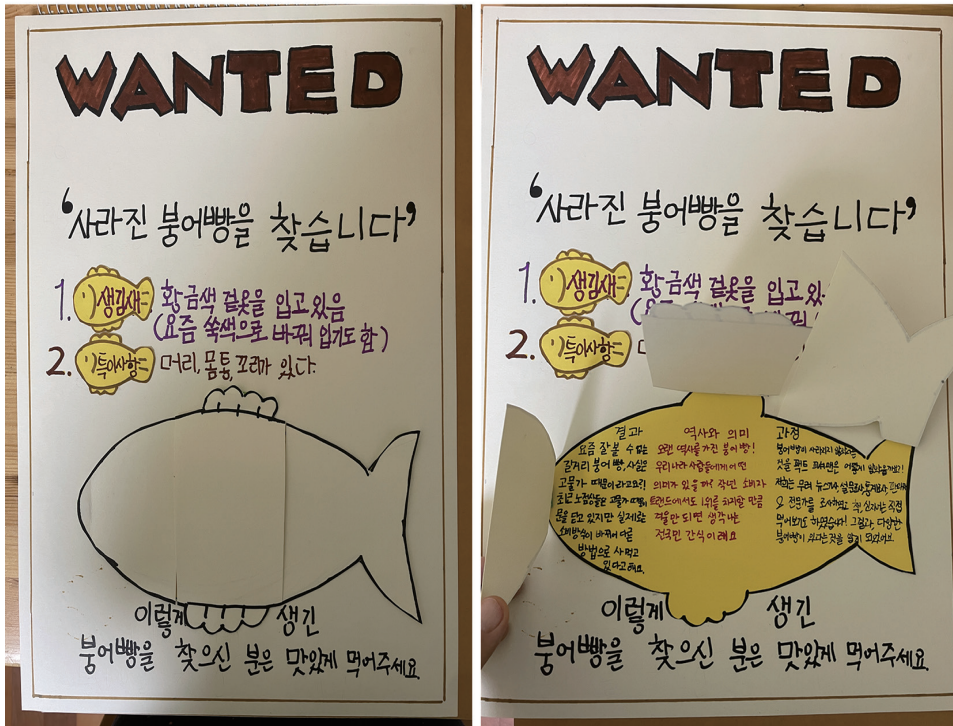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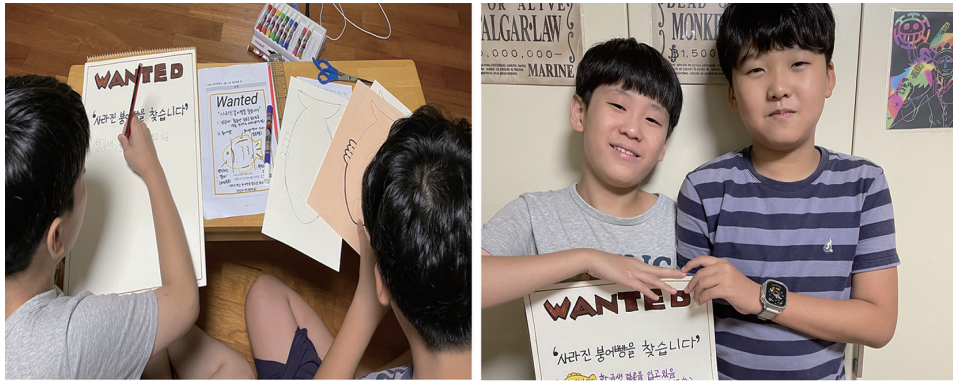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겨울철 대표 간식인 봉어빵이 길거리에서 사라지고 있는 현상에 관한 진실과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포스터 형태로 제작하여 알릴 것입니다.

🕒 상세설명

봉어빵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을 떠올려 저희 미디어 콘텐츠는 사라진 봉어빵을 찾는 현상 수배지 형태의 포스터로 만들었습니다. 포스터에 들어가는 주요 내용은 봉어빵의 생김새, 특이사항입니다. 특이사항 내용은 총 3가지로 ①팩트체크 결과, ②봉어빵의 역사와 의미, ③팩트체크 검증 과정입니다. ①팩트체크 결과에는 길거리 봉어빵이 고물가에 재료 가격이 올라가 사라지고 있지만 실제로 조사해 보니 봉어빵은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되고 있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②봉어빵의 역사와 의미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봉어빵은 단순히 길거리 간식이 아닌 긴 역사와 의미를 갖고 있으며 겨울철 간식 1위로 매년 선정되는 만큼 의미가 있다는 점을 썼습니다. ③은 팩트체크 과정인데요, 길거리 봉어빵이 재료가 상승 때문에 사라지는지 확인해 보았던 통계 조사, 설문조사와 직접 먹어보았던 내용을 정리하여 썼습니다.

보통 붕어빵을 먹을 때 머리부터 먹는지 꼬리부터 먹는지 논쟁이 있는데요, 그것에 아이디어를 얻어 현상 수배지 형태의 포스터에는 머리, 몸통, 꼬리 부분에 각각 ①~③정보를 써놓고 각각의 부분을 열어볼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머리, 몸통, 꼬리 내용이 달라서 모든 내용을 확인하면 붕어빵 그림이 나타나 실종된 붕어빵을 찾는 것으로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저희가 콘텐츠 활용 캠페인을 할 때 내용을 들으시는 분들이 저희가 조사한 내용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홍보 및 캠페인 활동

현상 수배지 형태 포스터를 들고 우리의 팩트체크 결과를 주변 어른들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캠페인 활동은 저희가 자주 가는 동네 약국의 약사님과 병원 간호사 선생님, 학원 선생님께 저희가 조사한 내용, 팩트체크 한 결과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캠페인 활동 설명에는 한 가지 재미를 더해봤는데요, 붕어빵의 머리, 몸통, 꼬리 부분 중 어디부터 드시는지 물어본 뒤 그 부분을 열어 내용을 먼저 설명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입체 형태의 그림을 뜯으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포스터 내용을 같이 확인해 주시는 분들에게 실종된 붕어빵을 찾은 기념으로 과자 형태의 붕어빵(참붕어빵)을 하나씩 나누어 드렸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고 내용도 재미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팩트 체크 내용을 알릴 수 있어 뿌듯했습니다.





겨울이 지나서 뉴스, 신문 기사를 찾을 때 보다 봉어빵 가게 사장님 인터뷰를 찾는 점은 어려운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팀으로 활동하며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을 협력해서 쉽게 할 수 있었고 콘텐츠 제작할 때도 친구인 팀원과 아이디어를 합치니까 내용을 재미있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팩트체킹을 하는 과정에서 통계자료를 찾아 사실인지 아닌지를 찾아보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사실이나 정보를 알려줄 수 있다는 점은 팩트체크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 정보는 팩트체크를 통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참여소감

정구준

평소에 친근하고 맛있다고 느낀 봉어빵을 파헤쳐보니 이렇게나 많은 신기한 사실들이 숨겨져 있어 놀라웠습니다. 사실 체크온 클래스, 팩트체크 심화교육을 들었을 때 강조한 점이 주제선정인데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봉어빵을 주제로 선택한 것이 저희에게는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봉어빵은 족보도 길고 사람들이 봉어빵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 수 있게 되어 신기했습니다. 봉어빵의 원재료가 올라 길거리 봉어빵이 사라지고 있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소비하고 있다는 점도 새롭게 알 수 있었습니다. 팩트체크를 하며 조사도 많이 하고 정리 글을 많이 써 힘들었지만, 친구인 팀원과 함께하니 재미있게 느껴졌고 퍼즐처럼 하나씩 기워 맞춰 나가듯이 팩트체크를 하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사람들에게 짧고 쉽게 알려드리고 싶어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 때도 재미있는 포스터로 설명해, 사람들이 재미있게 들어 주셔서 즐거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앞으로 팩트체커로서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검색에 사실인지 팩트체크를 할 것 같습니다.

최형욱

우리 근처에 있는 봉어빵을 주제로 선정해 찾아보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대회 기간이